

감염병 예방관리 안내

□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당부 드립니다!

- ☞ 감염병 유행은 개학 초기에 많이 발생합니다. 호흡기 또는 수인성 감염병 발생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☞ 감염병은 단 한 명의 환자 발생으로도 집단 유행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. 본인 건강은 물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,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.

○ 학기중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

- 유행성이하선염, 결막염, 수두, 수인성 감염병(세균성 이질, 집단설사), 호흡기 질환, 홍역 등

○ 단체생활에서 지켜야 할 개인 위생수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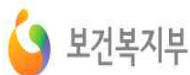
- 수시로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, 오염된 손으로 코나 눈,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.
- 기침이나 재치기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합니다.
- 침 등 호흡기 분비물로 오염된 물건은 비눗물로 씻어서 사용합니다.

○ 감염병 예방접종 안내

- 홍역, 유행성이하선염, 수두와 같은 감염병은 적기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 합니다.
- 예방접종 후에도 일부에서는 감염병에 걸릴 수 있지만,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증상이 경미하며,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.
- 예방접종도우미(<http://nip.cdc.go.kr>)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자녀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세요. (온라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아기수첩 또는 평소 방문하는 의료기관에 과거 접종내역을 문의)
-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도 정기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(무료 또는 접종 당 5천원)

□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대응요령

-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될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,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.
 - 유행성이하선염, 홍역, 수두 등의 감염병을 진단 받은 경우 담임선생님(또는 보건교사)에게 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립니다.
 - 증상발현 후 학교나 학원에서 집단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등교나 등원하지 않습니다
- ※ 등교중지 기준: 홍역- 발진발생 후 5일, 유행성이하선염(볼거리))-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,
수두- 수포 발생 후 딱지가 앉을 때까지 가정에서 휴식



전주시보건소

□ 주요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

○ 유행성이하선염(볼거리)

- 유행성이하선염은 4월~7월, 11월~12월에 많이 발생하며, 3~7세와 12~18세에서 발생률이 높음
- 유행성이하선염은 접촉이나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호흡기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므로, 개학에 따른 집단생활로 발생 증가가 우려됨
-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린 경우에는 전파방지를 위하여 증상 초기부터 증상 후 5일까지 가정에서 안정 가료가 필요함
- 유행성이하선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,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를 철저히 하고, 유행성이하선염을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

○ 결막염

-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은 8~9월 주로 유행함
- 특히 개학시기 전염력이 강한 눈병이 학교 내 유행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 필요함
-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함

○ 수두

- 수두는 연중 5월~6월, 12월~1월에 많이 발생하며, 3~6세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높음
- 수두는 피부병변과의 접촉 또는 말하거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호흡기분비물을 통해 감염되므로, 개학에 따른 집단생활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발생 증가가 우려됨
- 전파방지를 위하여 환자는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딱지가 앉을 때까지 가정에서 안정 가료가 필요함
- 수두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,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를 철저히 하고,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

○ 수인성 감염병

- 세균성이질, 집단설사 등 수인성감염병은 최근 3~6월 봄철 발생이 많음
- 특히 집단설사는 개학이후 집단급식을 통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
- 수인성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를 철저히 함

○ 수족구병

-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손바닥, 발바닥, 입술에 수포가 생겼다가 껍질이 되는 증상이 특징임
-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하게 발열과 인후통으로 시작되며 1~2일 후 손과 발, 입안, 항문주위의 점막에 물집이 생김
- 전파방지를 위하여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 될 때 까지 가정에서 안정 가료가 필요함
- 개인위생 철저 및 손씻기를 잘하고 수분공급과 부드러운 음식을 주며 시원하게 해주고 삼하면 해열제를 먹음

○ 홍역

- 홍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5%이상 감염되는 감염력이 매우 높은 질환임
- 홍역은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 또는 오염된 물건을 통하여 감염되고, 처음에는 감기처럼 증상이 나타나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함
- 홍역에 걸린 아이는 발진 발생 후 5일간은 학교(유치원, 보육시설)에 가지 않고 면적이 없는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함
-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,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를 철저히 하고 홍역을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 2회를 받지 않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

○ 백일해

- 발작적 기침이 있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초기는 가벼운 감기증세와 비슷하나 발작성 기침이 하루40~50회까지 나타나기도 하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1~2개월 이상 지속됨
- 전파경로는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기침, 재채기 등 호흡기 전파가 주된 경로이며, 치료는 주로 대증적 치료함

2016년 3월

호 남 제 일 고 등 학 교 장